

서핑지수 확인하고 안전하게 서핑 즐겨요!

- 서핑지수 서비스 지역 총 8개 해수욕장으로 확대 및 이용자 편의 개선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이철조)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서핑을 즐길 수 있도록 7월 18일(화)부터 서핑지수* 서비스 제공 지역을 확대한다.

* 해당 해역에서의 서핑이 용이한 지를 매우 좋음부터 매우 나쁨까지 5단계로 나타낸 지수로, 기상청 특보 등을 반영

국립해양조사원은 작년 6월부터 서비스 중인 동·남·서해안 4개 해수욕장(부산 송정, 동해 망상, 양양 죽도, 태안 만리포)에 이어, 올해 제주 괘지, 부산 다대포, 울산 진하, 고성 송지호까지 추가해 총 8개 해수욕장에 대해 서핑지수를 제공한다. 해당 해수욕장들은 연평균 약 50만 명 이상의 이용자들이 찾는 곳으로, 해수욕장 이용객들이 서핑지수를 많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핑지수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https://www.khoa.go.kr>)에서 바다낚시, 갯벌체험 등 총 8종의 생활해양예보지수와 함께 확인할 수 있으며, 여름철 해양예보방송* ‘내일의 해양레저지수(7~8월 방영)’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해양예보방송 유튜브(www.youtube.com/channel/UCM7RcZA1CiuyhQIOIOSNJ0g)

아울러, 국립해양조사원은 서핑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의 확대, 축소, 이동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하여 사용자가 서핑지역 주변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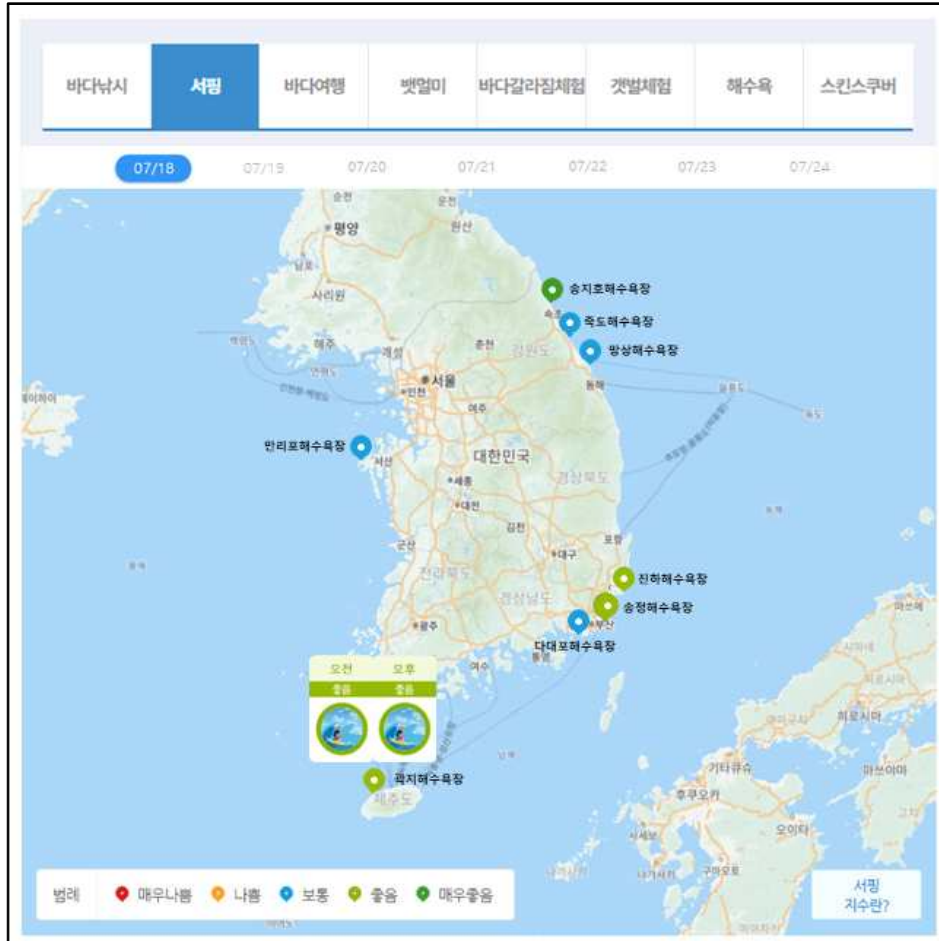
이철조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서핑지수 이용자는 서비스가 시작된 2021년에 비해 2022년 약 2.5배가 늘면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서핑을 즐길 수 있도록 대상 해수욕장을 점차 확대하고 서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예보과	책임자	과 장	김정현 (051-400-4106)
		담당자	팀 장	노재영 (051-400-4385)

참고1

국립해양조사원 서핑지수 서비스

□ [누리집] 생활해양예보지수 중 서핑지수



□ [해양예보방송] 내일의 해양레저지수

